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선플운동 각계각층이 힘 모았다

**'2016년 선플 활동 결과 보고대회 및 선플상 시상식' 12월 17일 활짝
문화체육부 장관상 패럴림픽 서수연 선수 "희망의 메신저 역할 할 것"**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12월 17일(토) 서울 망우청소년수련관에서 '2016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각급 학교 및 동아리, 공모전, 기자단 등을 통해 선플 활동을 펼친 학생과 지도자를 선정해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신인 걸그룹 '레아'의 선플 홍보대사 위촉식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에서는 김천 석전중학교 박용욱 교사가 선플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박용욱 교사는 발표에서 선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사례를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했으며 선플동아리로 인해 끈끈하게 뭉쳐지고 있는 학생들의 보람있고 활기찬 모습을 알렸다.

시상식 인사말에서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사이버 세상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선한 댓글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전국으로 퍼지길 기대한다"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선플 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문화체육부 장관상에는 '2016 리우패럴림픽' 장애인 탁구 종목 은메달리스트인 서수연 선수가 선정됐고, 법무부 장관상에는 김해 신안초 박현성 교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에는 서울 대신고 공원기 교사, 교육부 장관상에는 김천 석전중 박용욱 교사가 수상했다.



12월 17일(토) 서울 망우청소년수련관에서 2016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시상식이 열렸다.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은 서수연 선수는 모델이 꿈이었지만 모델 준비중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불운을 맞았다. 하지만 서수연 선수는 불운에 굴하지 않고 탁구로 전향하여 불굴의 노력 끝에 2016년 리우패럴림픽 장애인 탁구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어머니와 함께 광주에서 올라온 서수연 선수는 이날 소감에서 "원래 내 꿈은 모델이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그 꿈이 좌절되었다.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절망의 나날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목표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 노력하였고 마침내 2016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며 "오늘 받은 이 상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취지로 수상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꿈을 잃고 좌절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이에 이날 선플지도자 부분 대상을 받은 한국모델협회 양의식 회장은 서수연 선수의 사연을 듣고 "서수연 선수는 체격과 얼굴을 봤을 때 모델로 제격이었다. 아마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영광을 서수연 선수의 꿈을 이뤄주는 일도 함께 하라는 명분이 주어진 것 같아 서수연 선수를 모델협회에 등록시켜 모델의 꿈을 이뤄주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주위의 갈채를 받았다.

또 선플 학생 기자단 운영과 선플신문 제작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은 여영미 한국NGO신문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찾고 있다. 사이버세상의 윤리교육의 기초가 되는 선플운동은 무척 큰 의미가 있다"며 "언론의 책임이 큰 시기에 받은 상인 만큼 사회를 더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선플지도자 대상 박현성 교사는 수상 소감에서 "일상생활에서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고 친구에게 칭찬, 격려하는 운동이 다 선플운동이 될 수 있다"며 "선플 운동을 통해 건전 사이버 문화 조성과 함께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상, YTN PLUS 사장상, 장관상, 참모총장상, 대학 총장상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선플운동은 지난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들던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지난 9년간, 국내에서 7천 여 학교와 단체에서 63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이 690만개를 넘어섰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플운동은 지난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들던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지난 9년간, 국내에서 7천 여 학교와 단체에서 63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이 690만개를 넘어섰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선플 학생 기자단 운영과 선플신문 제작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은 여영미 한국NGO신문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찾고 있다. 사이버세상의 윤리교육의 기초가 되는 선플운동은 무척 큰 의미가 있다"며 "언론의 책임이 큰 시기에 받은 상인 만큼 사회를 더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선플지도자 대상 박현성 교사는 수상 소감에서 "일상생활에서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고 친구에게 칭찬, 격려하는 운동이 다 선플운동이 될 수 있다"며 "선플 운동을 통해 건전 사이버 문화 조성과 함께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상, YTN PLUS 사장상, 장관상, 참모총장상, 대학 총장상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선플운동은 지난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들던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지난 9년간, 국내에서 7천 여 학교와 단체에서 63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이 690만개를 넘어섰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선플 학생 기자단 운영과 선플신문 제작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은 여영미 한국NGO신문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세상에서

조용태 기자



12월 25일, The K 호텔에서 필리핀 복싱영웅 매니 파퀴아오를 '선플대사'로 위촉했다

필리핀 복싱영웅 파퀴아오 선플대사 위촉

8체급 석권한 복싱영웅으로 현재 필리핀 상원의원 활동
"긍정의 에너지 전파하는 선플운동 지구촌에 알리겠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2월 25일, The K 호텔에서 필리핀 복싱영웅 매니 파퀴아오를 지구촌 인터넷 악플추방을 위한 '선플대사'로 위촉했다.

매니 파퀴아오는 "악플 추방운동인 선플운동의 선플대사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선플운동을 지구촌에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병철 이사장은 "매니 파퀴아오와 같은 존경받는 복싱 영웅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구촌에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이 꽃피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매니 파퀴아오는 플라이트(52Kg급)부터 슈퍼웰터급(70Kg급)까지 8

체급을 석권한 복싱 영웅으로, 현재 필리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3년 필리핀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지역을 찾아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당시 시합으로 받은 대정료 1,800만 달러(약 192억원) 전액을 기부한바 있다.

조용태 기자

'우리말 나들이'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MBC 교양 프로그램 '우리말 나들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2016년 하반기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수상했다.

'우리말 나들이 안녕! 우리말'은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가장 내 언어실재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특집 프로그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말 나들이'는 언어폭력이 쉽게 발생하고 있는 가정 내 언어사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바른 언어사용을 유도하였고 특히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

치는 부모의 말 한마디의 중요성과 가정 내 언어순화 및 소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기에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수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에서 주목한 점은 '청소년'이었다. 몇 년 동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청소년 언어에 대해 관심을 쏟고 우리말을 더욱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과 바람을 전했다.

이경 기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헨들 개발」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적용한 통격률은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숨겨진 담겨져 있습니다.




참여와 아름다운 변화

수필 대상 / 진해용원고등학교 민보강

늦더라도 내가 먼저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 자신의 변화는 늦었지만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서 우리보다 화려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무작정 비난하기 일쑤였다. 우리나라 리듬제조 선수의 기사에는 악플이 만연하였다. 악플만 가득한 기사에 선품을 달았을 때 나의 댓글에 다른 사람들의 비공감과 악플로 가득했다. 선품을 달았다는 이유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남긴 악플을 보며 묘한 기분 나쁨과 잡자리에 서도 불편한 생각 날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 그렇다. 나 같은 일반인도 악플의 악플을 받아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하루에도 수백 개에 달하는 악플을 받는 공인들의 자살과 우울증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내가 선품을 달아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기사의 전체적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깔려있는데도 나 혼자만 이방인처럼 선품을 달았던 것이었다. 부정적으로 조성된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선품을 달아도 사회는 변화될 수 없다. 특히 인터넷은 군중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바로 다음날 공인

들 기사의 첫 댓글로 선품을 달아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그랬더니 뒤에 네티즌들의 댓글도 긍정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악플은 단 네티즌의 댓글에 사람들은 질타로 응답해주었다. 바로 이것이였다. 나 혼자 갑자기 착해진다고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난을 당하여 더 소극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용기를 낸다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처음의 용기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 누구도 상대를 마음대로 질타할 권리는 없다. 하지

만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가면 속에 숨어 누군가에게 마구잡이 화살이 쏠리는 것은 아닐까? 위 개인경험을 계기로 학교생활에서도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남학생이라고 친구에게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생김새로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위 경험으로 생각 없이 상대에게 한 말이 어쩌면 큰 상처를 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별명 대신 친구 이름을 부르려고 했고 생각 없이 내 뱉었던 비속어 대신 선한 말을 쓰려했다. 의식적으로 고치려니 처음엔 상당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습관으로 자리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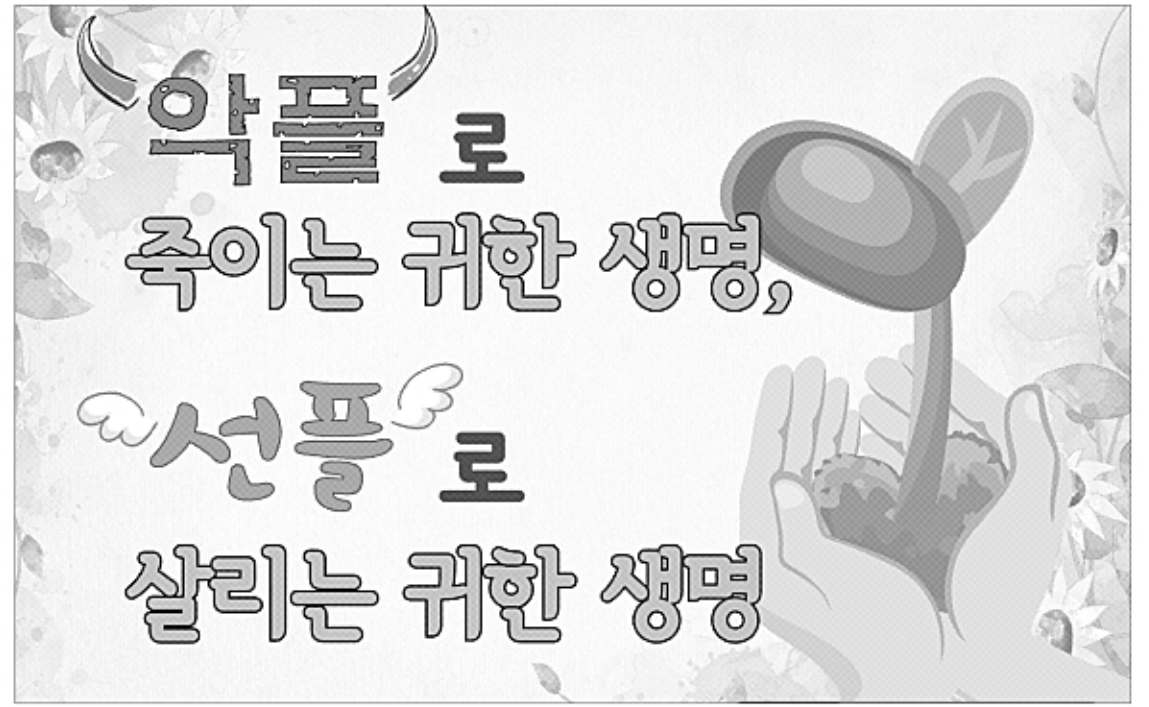
을 수 있게 되었다. 신기한 것은 나 혼자만의 변화가 서서히 반 친구들의 전체 변화로 이어지는 효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 외형을 과장한 놀림은 아예 사라졌다. 결국 서로가 그러한 장난을 기분 나빠하였지만 자신에게 받은 상처를 돌려주기 위해 서로를 헐뜯었던 것이었다. 이전 서로가 비난하는 대신 고운 말과 웃음이 오고가며 밝은 학급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폭력으로 상처를 낼 수는 있어도 언어로 상처를 낼 수 없다 생각했다. 딱히 외관상 상처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은 틀렸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법이다. 마음속 상처를 숨길수록 그 상처는 아물 수도 없이 깊어지는 것이 언어폭력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다. 똑같이 상처받고 아파한다. 사이버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계에서도 똑같다. 처음엔 실험삼아 해본 개인 변화는 확실히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 요즘 친구들에게 선품달기 운동을 앞장서서 홍보하기도 한다. 이 수필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스터만화부문 : 보은고등학교 신운승〉



〈사진부문 대상 : 김해신안초등학교 황유정〉



〈표어부문 대상 : 한성과학고등학교 장영재〉

현대시대와 악플러

수필 최우수상 / 한광여자고등학교 이고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이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터넷에 의존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을 할 때나 인터넷을 찾고 이용한다. 어찌 보면 그 결과로 미디어 매체, 대중 매체 등이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물론 그에 비추는 연예인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활동이나 행동들은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온다. 대중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들을 막무가내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때문인지 대중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추어 연예인들을 보게 되고 호와 불호인 연예인들로 나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연예인들과 그들의 행동들은 대중들에게 평가받는다. 대개 평가라고 하면 인간과 사물의 좋고 나쁨을 따져 갈피 짓는 것을 평가라고 한다. 하지만 대중들 중 일부는 평가를 넘어선 비판과 비난을 일삼기도 한다. 나는 연예인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직업적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가가 아닌 비판이나 비난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그 어떤 매체보다 활동적이고 비교적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연예인들의 활동은 주로 인터넷 기사로 대중들에게 알려진다. 하지만 요즘 대중

들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에 한해서는 과격하게 반응하며 그러한 정부차원에서도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기사들에 소위 '악플'이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을 아무렇지 않게 북돋는다. 이러한 사람들을 '악플러'라고도 하는데 이런 악플러들은 아마 연예인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텔레비전 등 대중 매체에 비추진다고 해서 특별한 재가 아니고 연예인들은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하루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함에 불구하고 악플러들은 막무가내로 그들의 생각들을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 표현한다. 당시자인 연예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 동료들까지 그러한 극심적인 악플들을 보고 상처받기 일쑤이다. 심지어 우리같은 일반인들도 그러한 악플들을 볼 때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한다. 이러한 악플들로 이미 연예인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경우도 많다. 우리 모두는 댓글 한 줄 한 줄이 결국 한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심각성을 몸소 깨닫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방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방관자, 그들은 살인자라고 까지 과장하여 말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악플은 사라져야 하고 그만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연예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악플러에 대항하고 있다.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잠재된 악마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수필 우수상 / 용화여자고등학교 이정민

우리는 조별과제를 할 때도, 숙제를 할 때도, 심지어 놀 때도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인터넷을 쓰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을 만큼 우리의 생활은 인터넷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기기를 통해 인터넷은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바로 악플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지 않는 점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 및 선동과 욕설과 비난과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물론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악플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 아무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다고 해도 단 한 개의 악플도 없는 기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악플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서 사람들은 악플을 다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법으로 제재하지 않아서?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다. 이미 많은 악플러들이 고소를 당했고 많은 미디어들은 악플의 심

오늘은 미루지 말고 선품을 한번 달아 보는 것이 어떨까

각성에 대해 보여 주었다. 한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플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개개인이 악플러들을 줄인다? 이걸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및 공인들에게는 어떤 비난과 어떤 의견을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수많은 악플들을 접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처럼 말이다. 일단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만 생각을 고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악플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을 달지 마시라"라고 말하는 건 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인터넷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벽에는 낙서하기가 어렵지만 이미 더러워진 벽에는 낙서를 하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선품을 통해 악플을 달기 힘든 분위기를 만든다면 악플을 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선품을 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숙제를 도와준 친구에게 칭찬을 하듯이 간식을 양보해 준 동생에게 하듯이 그런 가벼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은 미루지 말고 선품을 한번 달아보는 것이 어떨까.

힘을 주는 사람들

수필 우수상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김희원

선플활동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지금 아니면 이런 활동을 또 언제 하나

곧 있으면 내가 선플 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1년이 되는 날이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활동들을 하며 의미 있는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을 2학년에 올라와 처음 하게 된 것이 많이 어렵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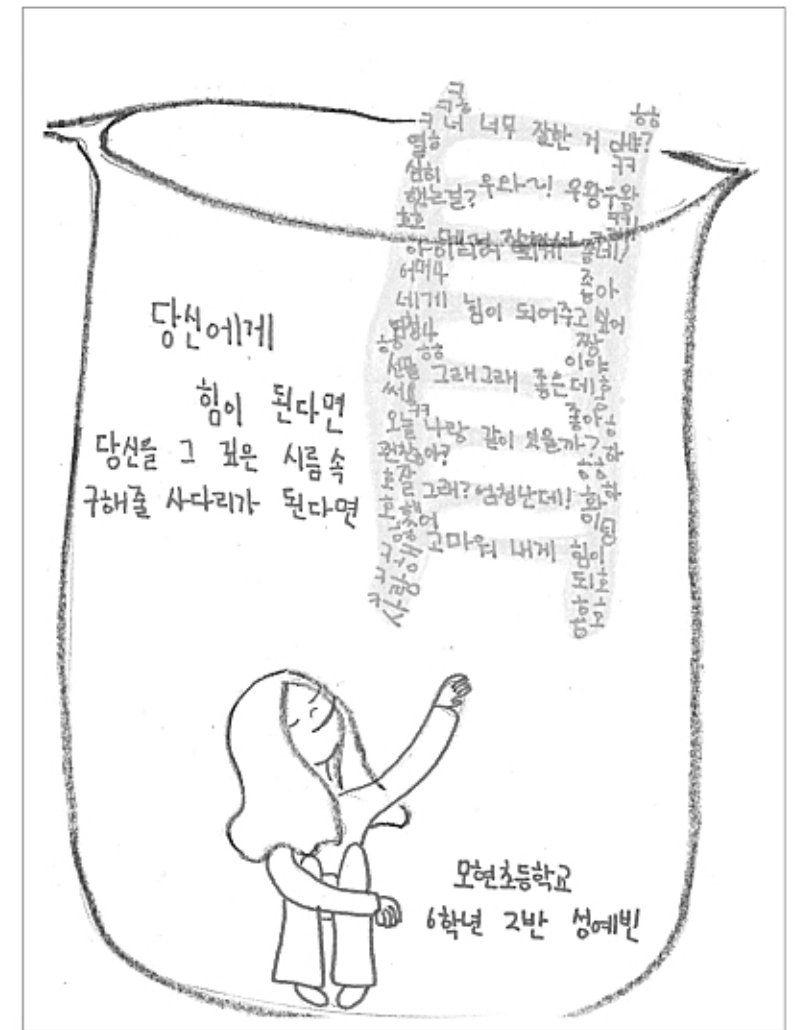
선플활동을 내게 처음 알려주신 분은 선플 지도교사이신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의 '이상중 선생님' 이시다. 평소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는 많은 학생들이 선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가 선플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수업 중 선생님께서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선플활동을 직접 해본 후, 나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동아리는 길거리 캠페인을 자주 하였는데, 처음 캠페인을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일 뿐이었다.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마 지나지 않아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각뿐 아니라 선플 활동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지금이 아니면 이러한 활동을 또 언제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선플운동본부'에서는 '어려운 이웃,

자연재해 피해주민,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응원과 따뜻한 말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한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한다. 내가 했던 선플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16년 10월 15일 '임재운 학생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하는 선플걷기 및 선플작은음악회 활동이다. 지난 2012년, 우송중학교 수학여행 차량의 추락사고로 임

재운 학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올해, 임재운 학생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한다는 학교 선플 공문을 보았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힘을 줄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하자는 마음까지 들었다. 임재운 학생은 나를 모르겠지만 누군가 진심을 다해 응원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것이다.

겉보기에는 댓글을 달고 홍보 캠페인을 하는 보잘것없는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활동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준다면 올바른 사회로 바꿀 수 있는 큰 활동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꼭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따뜻한 댓글 하나를 달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로 사회는 크게 바뀔 수 있다.



〈포스터만화부문 최우수상 : 모현초등학교 성예빈〉

우리가 해야할 일

수필 우수상 / 전곡고등학교 이다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용서할 수 없어도 반성의 기회는 줘야

옛 말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말은 어떠한 상황을 좌지우지할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들도 인터넷상 속에서 네티즌들의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 된다. 오프라인에서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 속에서 어쩌면 하나의 문장에 불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다른이의 혀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일 수도 있다. 유명인부터 내 옆의 친구까지 다양한 이들에 대해 육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퍼뜨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위 악을 이라고 부른다. 악물은 말 그대로 뾰족 악할 악이라는 글자를 가진 악한 댓글을 말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악하다고 이야기 하는 댓글들을 정작 본인들은 악한 의도를 담지 않고 꼭 던진 말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솔직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만약 그들 주변인들 아니 가족 혹은 자신 이었다면 솔직한 것 이라

고 담당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은 자신이 겪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지하다. 공감할 수는 있어도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는 없다. 왜? 내가 겪어 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무감각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 법이다.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그들은 내 생각에 겁쟁이 인 것 같다. 좀 더 숙된 표현을 사용하자면 아가리 파이터, 말 그대로 모니터라는

악랄한 가림막 뒤에 숨어서 남을 헐뜯고 상처를 주는 겁쟁이들...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이런 말을 하는 나를 볼때면 나도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때가 있다) '얼마나 한심하고 할 일이 없는 아들이면 반짝 반짝 빛나는 이들을 저리도 미워하고 싶어 할까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못난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나온 일명 아가리파이터들에게 따뜻한 손을 건네 주며 따스한 말 한마디 해줄 이가 어디

에 있을 까. 남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팬플러에게 관찰아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넷상에서 상처를 주던 그들은 현실에서 손가락질 받고 함담을 들으며 차가운 세상에서 살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도 또한 우리 사회의 과업이며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 된다.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당신도 똑같이 받아야 해' 라는 말 보다는 '왜 그런 거야?' 라는 질문, 물음표를 건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빛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더 이상 빛나지 않도록 상처를 주지 않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포스터만화부문 우수상 : 남개대학교 대학원 차영아〉

5박 6일 중국으로 떠난 선플여행

수필 우수상 / 대신고등학교 임동주

중국까지 가서 선플캠페인을 하려는 이유 사이버블링이 중국서도 매우 큰 사회 문제

방학이 끝나갈 무렵 잠시 학교생활을 뒤로하고 중국에 다녀왔다. 원래 이 중국여행의 목적은 중국 명문대학을 탐방해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고 중국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이었지만 평소 해왔던 선플 캠페인을 중국에서 해보게 어떻게? 라는 생각으로 낯선 땅, '중국'에서 선플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우리가 중국까지 가서 선플 캠페인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인 사이버블링이 중국에서도 매우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에게도 선플을 달고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인터넷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캠페인 '선플운동'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는 중국여행을 가기 전부터 중국어로 된 선플 팸플릿을 제작하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두 달 전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왔기에 실로 중국 땅을 밟을 때는 "진짜 중국에 온거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감이 안되었다. 5박6일간의 일정 중 다섯번째 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상하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첫 번째 캠페인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캠페인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소통을 하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1인당 5명의 사람, 합해서 약 150명의 중국 시민들에게 선플운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었다. 말도 안 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금의 중국어와 웃어주는 것 뿐이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겨주고 경청해주었다. 중국인들의 친절함 성품덕에 우리가 그날 준비했던 전단 150장을 모두 나눠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나는 첫 번째 선플 캠페인을 끝내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팸플릿을 나눠주고 선플운동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너무 보람찼었고 이 모습에 지도교사로서 오신 공민기 선생님도 뿌듯해하셨다. 다음으로 우리는 '동양의 MIT' 라고

도 불리는 교통대학교에서 두 번째 선플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미리 공부해간 중국어로 학생들에게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선플운동에 대해 소개시켜주었다. 생각보다 날씨가 무덥기도 하였으며 처음보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몇 명의 학생들은 우리를 피했지만 대다수에 학생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들어주었고 뜻밖에 관심을 많이 표해주었다. 학생들에게 책자를 모두 나눠준 다음, 우리는 교통대학교 교수와 간단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가고자 질문도 많이 하고 교수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었다. 교수님이 학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자 개인질문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교수

님이 누구보다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요즘 사회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중국에서도 선플운동과 비슷한 캠페인이 있는지 여쭙보았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교수님의 답변을 한참 기다렸다. 통역사를 통해 들려오는 말은 아쉬울 수 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선플을 다는 운동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은 나를 살짝 기쁘게 하였다. 아직까지 그런 운동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선한댓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성숙해진 중국의 시민문화에 놀랐던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같이 선플운동에 서약하고 세미나를 마쳤다. 이를 끝으로 중국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나는 국내에서가 아닌 직접 해외로 나가 우리나라의 '선플운동'에 대하여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소개자를 나누어 주면서 단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뛰어 다니며 선플을 알렸다는 점에서 중국캠페인은 정말 뿌듯했다. 낯선 땅 중국에 와서 셀 수 없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선플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중국여행이 매우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다.



〈포스터만화부문 우수상 : 초당고등학교 백승혜〉



<표어부문 최우수상 : 대구대덕초등학교 신준호>



<표어부문 우수상 : 일반 김현희>



<표어부문 우수상 : 일반 우혜란>



<포스터만화부문 우수상 : 만안청소년수련관 김기문>



<표어부문 우수상 : 일반 장현진>



<표어부문 우수상 : 대부중학교 이재민>



<사진부문 우수상 : 이호중학교 강근호>



<포스터만화부문 우수상 : 안산공업고등학교 진선주>



<사진부문 최우수상 : 정광고등학교 김유정>



<사진부문 우수상 : 서울대신고등학교 임동주>



<사진부문 우수상 : 김천석천중학교 박영호>



<사진부문 우수상 : 김천석천중학교 임규진>

김천석천중학교 2016년 선플 우수학교 선정

박용욱 교사 선플지도자 대상(교육부 장관상), 백인우 학생 선플공모전 대상 외 다수 수상



12월 17일(토) 서울 망우초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2016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에서 2016년 선플지도자대상(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다.

김천석천중학교(교장 이각용) 선플 동아리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가 서울시립망우초소년수련관에서 지난 12월 17일(토) 개최한 '2016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상 및 선플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선플 지도자 부문에서 박용욱 교사가 중학교부문 선플 지도자 대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백인우 학생은 선플 공모전 블로그 대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권우현 학생은 선플 봉사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선플 사진 공모전에서 임규진, 박영호 학생이 우수상(해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경원, 이효재, 김형준 외 다수의 학생들이 장려상(선플운동본부이사장상)

을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플 활동 온오프라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박관영 학생이 선플봉사상(카카오 사장상)을 수상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시상식에 참여한 박용욱 교사는 선플활동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김천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가 사이버폭력 예방 및 선플활동의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영광이며 모든 학교와 단체의 지도

자, 학생들이 건전한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에 올해 함께 노력하였는데 내년엔 더욱 더 보람찬 선플활동을 통해 선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감을 밝혔다. 김천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여 요일에 상관없이 매주 선플달기를 하였으며, 학교, 학교 단위를 넘어서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교내, 교외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였다. 매주 선플 달기 및 선플 UCC 만들기, 선플 캘리그라피 만들기, 선플 신문 만들기, 선플 탁구 개최, 악플 피해자를 위로하는 선플보드지 만들기, 김천시 청소년 문화행사 일취월장 선플부스 운영 및 대규모 선플캠페인,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 캠프 참가, 학교 축제 선플부스 운영, 선플 강연회, 선플음악회 및 거리캠페인 참가 등을 한해 100회 이상 활동했다. 그 결과 김천석천중학교의 선플동아리의 활동들이 김천 및 경북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각종 공모전 및 대회에서 동아리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공모전에서 선플 우수학교에 선정됐고, 교사와 학생들이 다수 수상했다. 박용욱 교사는 지난해 선플블로그 공모전에서 우수상(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학생들과 선플동아리를 조직하였고 올해 3월 공식적인 선플동아리를 조직하여 열정을 갖고 올 한해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조용태 기자

청소년에게 바른말 사용교육을! 나쁜 영향 끼치는 비속어 "안돼"

방심위, 비속어·조롱 표현 종편 시사프로 법정제재

'청소년에게 바른말을!' 청소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속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중, 이하 방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욕설과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드라마와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특정인을 조롱·희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등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JTBC '청춘시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의 욕설과 비속어 등을 일부 비프음과 묵음 처리해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채널A '아침 경제 골든 타임'은 거제 지역에서 수산물 섭취 후 콜레라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서, 같은 채널의 '신문이야기 돌진구 쇼'는 출연자가 특정 사건에 대한 화성시장의 해명에 대해서 근거없이 '거짓말', '쇼'라고 단정하고 '빙신'과 같이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각 '주의'를 받았다. TV조선에서도 '박종진 라이브쇼'는 특정 당 대표 선거 후보들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누가 되든 전혀 차이가

없다", "그냥 재미 뽑기로 하지" 등 특정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주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는 이날 협찬주 또는 특정 상품·기업 등에게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하였다. TBC-TV '생방송 굿데이프리데이'는 특정 여행상품과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담은 인터뷰 등을 방송하고, 향후 출발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판매를 권유하는 내용 및 문의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노골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의'를 받았다. KBS-2TV '배틀 트립'은 연예인들의 여행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협찬주인 특정 항공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특징과 가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이용정보를 비롯해 해당 항공기 탑승시 터미널 이용의 편리성 등을 화면 구성, 자막, 출연자의 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협찬주에게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주의'를 받았다. 이경 기자

한글발전연구소, 주시경 집터

주시경은 한글책 보따리를 들고 한글을 가르치려 다녀

새문안로3길을 따라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바로 나타나는 건물, 한글 거리답게 그 이름도 '용비어천가'다. 지금은 주상복합건물이지만 주시경 선생이 살던 역사적 공간이다. 주시경 선생의 별명은 '주보따리'였다. 언제나 손수 만든 한글책 보따리를 들고 한글을 가르치려 다녔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천재 교육가입니다. 내가 선생님께 지리, 역사, 국어를 배웠습니다. (중략)그때 여름, 컴컴한 이 학년 교실에 가득이나 좌석이 좁아 걸맞으면 생도들은 줄게 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시간에는 어찌 그리도 재미있던지 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의 회고록이다. 주시경 선생이 팽방울도 닦을 새도 없이 열심히 걸었던 것은 조 금이라도 더 빨리 학생들을 만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선생은 그렇게 정동일대와 남대문, 종로네거리를 교통수단도 없이 걸다다녔다. 교사가 부족했기에 서울 안의 열여



주시경 씨 학교의 교사로 한 주간에 40여 시간을 도맡아 가르쳐야 했다고 한다. 선생의 살림살이는 항상 곤궁해 그의 조그만 집은 5남매와 책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독지가는 집을 마련해 주었고, 이후 주시경 선생의 집은 한글발전연구소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평생 한글 연구를 외길을 걸던 선생은 1914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이 집에서 눈을 감았다. 조용태 기자

한글학회는 어떤 곳일까요

1908년 주시경 김정진 등 창립한 국어연구학회에서 출발 우리말과 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글에 대한 사랑은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최근 비속어와 은어가 난무하고 있지만 한글에 대한 뿌리부터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말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말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한글학회에 대해 아는 일도 바로 한글사랑과 연결된다. 한글학회는 서울시 구세군회관에서 새문안로3길을 따라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전 세번째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한글학회가 이곳 새문안로 3길에 자리 잡기까지는 딱한 사연이 있다. 1921년 12월 31일 휘문숙(현 휘문고) 교장실에서 창립한 한글학회는 표음, 화음, 관음 등 지를 10여 차례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했다. 이 설움 저 설움 해도 집 없는 설움이 크다는데 방대한 자료와 서적 등을 가지고 다니며 이사의 쓴 맛을 다 겪었던 것! 초대 법무장관이었던 이인 선생이 이를 보다 못해 평생에 걸쳐 마련한 돈과 집을 기증하였고 이를 계기로 모금운동을 벌여 1977년 10월 8일 비로소 지금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에 보급자리를 틀게 된다. 빨간 벽돌 건물 한글회관은 그렇

게 시작되었다. 한글학회는 1908년 주시경, 김정진 등이 창립한 '국어연구학회'라는 한글모임의 모체로 탄생하여 1911년 '배달 말글 모음', 1913년 '한글모', 1921년 '조선어연구회', 1931년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고쳐다가, 1949년 9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현재, 한글학회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우리말과 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한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사업부터, 한글이 대중적으로 빠르게 보급되어지는데 목적을 둔 재미있는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다. 한글학회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때는 일제의 폭압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한글학회에 전국 각지에서 날아온 편지가 수북하다. "이래와 같이, 이곳 방언을 규칙 없이 적어드립니다. 조선어사전 편집자에게 백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적어드리겠습니다. 함내십시오." '말모이 작전'에 참여했던 길주 지방 자원봉사자의 편지. 그는 채집한 방언을 보내면서 애정 어린 짧은 글을 덧붙인 것이다. 우리 말과 글을 금지했던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우리말을 지키려 한국어사전 편찬에 몰두한다. 이를 위해 비밀리 진행된 '말모이 작전'은 전국 방방



한글학회 모습. 곡곡 우리말을 모아내는 작업이었다. 13년간의 노력은 원고도 빼앗기며 위기를 맞았지만 사라졌던 원고도 기적적으로 발견되면서 1957년 드디어 '큰사전'이 완성되었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연구학회'를 모체로 탄생한 한글학회는 한글날과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만드는 등 우리말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이경 기자

한글의 따뜻한 응원, 선플!

호박패밀리가 함께합니다.

HOBAK FAMILY

호박식당 이키니구 외국인모집 02.798.7905	한와담 반우 숙성 통식 전문점 02.749.7905	Yangpai 양파치양파치 전문점 02.794.1105
Charlies CHICKEN Limited Chicken Service 02.2236.7905	Pumpkin 다저푸드디너스 카페 02.733.79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